

20여년 동안 폭행 일삼은 남편 살해

여성단체 구명활동에 나서

지난 16일 안양시 신촌동 무궁화 건영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40) 씨는 새벽 2시 술에 만취해 돌아온 남편이 망치를 들고 TV 화면을 부수고 문갑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말렸으나 남편이 오히려 이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 이에 격분한 이 씨가 아이들(2남 1녀)이 보는 앞에서 부엌칼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했다.

18일 현재 과천 경찰서에 수감중인 이 씨는 경찰조사 결과 18세에 남편을 만나 결혼생활 23년 동안 이와같은 폭행을 당해왔으며 남편은 음

주와 도박으로 세월을 허송, 부인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20여년 동안 파출부로 일해오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벌어들였다.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죽일 생각까지 없었는데, 단지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인데...”라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한국여성의 전화는 이 사건이 아내구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비가 부른 결과로 보고 이 씨의 구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